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한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4일 화엄사를 출발해 숙영지인 지리산 시암재 휴게소로 들어서고 있다. 해발 958m에 위치한 휴게소에 진행팀이 설치한 순례단 텐트가 보인다.
구례=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기본으로 돌아가자”

사성암 화엄사 천은사 등
불전 예경 올리고 보시행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등 삼보사찰을 걷는 이번 천리순례단은 순례길 곳곳에 위치한 사찰을 반드시 참배하고 불전함에 보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간 대부분의 순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길을 걷는 것만을 의미했다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다시 불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실천 정신을 담았다. 불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고 정성스레 공

양을 올리는 것. 불교 중흥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쌓아가자는 뜻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4-6면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입재를 시작으로 사성암, 화엄사, 천은사, 실상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을 찾아 적극적으로 불전에 보시하며 공덕을 쌓아가고 있다. 김호준 전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는 사성암 약사전을 참배하며 “자기 성찰의 목적으로 참여한 천리순례지만 매일 고된 일정을 소화하고 사찰을 찾아 보시하며

기도드리다 보니 불심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순례단을 이끄는 회주 자승스님도 솔선수범해 보시에 나서고 있다. 회주 스님을 필두로 순례 참가자 모두 사찰 내 각 전각을 찾아 예경하며 걷기 시작 전 발원문을 가슴에 새기며 불자로서의 기본을 다지고 있다. “천리순례단 발원문. 삼보를 예경하는 순례의 원력으로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의 길을 가겠습니다. (중략) 순례의 일심 발원이 전법중흥을 이루고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사르는 길로 나아

가겠습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서로가 스승이기를 발원하오니 널리 섭수하시어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한편 천리순례단은 10월1일부터 7일까지 166km를 걸었다. 송광사를 시작으로 화엄사를 거쳐 지리산 시암재와 성산재를 넘어 남원으로 진입했다. 전북 지역에 이르러서는 실상사에서 함양으로 오도재와 지안재 등 오름과 내리막 구간을 걸으며 바래기제로 향한다.

함양=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시·혜해스님, 산문·법념스님
10·27법난 문예공모전 대상

총무원 사회부·본지, 수상작 발표

10·27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고 종교적 평화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10·27법난 전국 승려 문예공모전’ 결과 혜해스님의 ‘가사를 정대하며’와 법념스님의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가 각각 시와 산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원경스님)

와 불교신문(사장 현범스님)은 전국 승려 문예공모전 심사를 거쳐 시와 산문 부문 각각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수상작 16편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10·27법난의 진실, 파사현정, 유구한 역사의 한국불교’와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을 주제로 시와 산문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시 부문에서는 대상 혜해스님을 비롯해 서현스님의 ‘비몽’, 종명스님의 ‘기억상실’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무작스님의 ‘입멸’ 등 5편이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문 부문에서는 대상 법념스님을 비롯해 지몽스님의 ‘우리는 어디에서 서 있는가?’, 영우스님의 ‘10·27법난의 원인과 역사적 의의’가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은산스님의 ‘황당한 폭력’ 등 5편이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문별 대상에는 상금 300만원이, 우수상에는 상금 100만원이, 장려상에는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10월27일 ‘10·27법난 제41주년 기념법회’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천진암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사과’ (경기도 광주시)

전면 재검토…“중단 의견 수렴해 진행” 입장 밝혀

경기도 광주시가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가톨릭 성지 순례길 조성 사업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순례길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며 중단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경기도 광주시는 10월5일 중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향후 불교와 천주교간의 종교적 갈등과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남한산성-천진암 성지 광주 순례길’ 사업 명칭을 쓰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며 중단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사과 표명은 그동안 불교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결정이다. 광주시가 ‘천진암성지 廣주 순례길’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단은 총무원 사회부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총무원 사회부는 △광주시장의 공식 사과 △성지순례길 사업 중단 촉구 △사업 명칭을 포함한 원점 재논의 등의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호국불교의 성지인 남한산성과 불교 자비심의 상징인 천진암이 포함된 성지순례길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

전국비구니회, 경기도광주불교사암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도 남한산성과 천진암 등 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순례길 사업을 비판했다.

광주시 사과 표명에 대해 총무원 사회부는 10월7일 입장문을 발표, “광주시에 서 해당 사업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한 사과와 명칭 수정 및 사업 재검토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단은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우수한 전통문화콘텐츠가 바르게 해석,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 사회부장 원경스님은 “사회부는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거듭 광주시에 중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광주시가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천진암이 갖고 있는 역사의 아픔을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천진암을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천진암이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사 고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

새로운 인연 因緣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은 불자수 감소 위기에 직면한 때,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를 만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거룩한 불사입니다. 수익금은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언론 교육 의료 해외구호 포교 단체에 전액 지원됩니다. 포교 마중물이 되는 불사에 수회동참 바랍니다. ▶관련기사 12면

기간 | 11월 2일(화) ~ 8일(월) 장소 | 동국대학교

주최 :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선서화전 추진위원회

주관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아름다운동행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월결사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불교방송 불교TV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증명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전체 법원 대중사

고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특별선서화전 봉행위원장 정문 보광 진우 범해 경우 성우 본각 주윤식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2021년 삼화사수록재

무관중 행사

국한지절 귀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하늘과 땅(天地), 저승과 이승(冥陽), 사성과 육범(水陸)의 모든 존재들이 무차평등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수록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이는 조선초 삼화사에서 선행되었던 삼화사 수록재 무형의 종합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시키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 국가무형문화재삼화사수록재보존회 회장 임 법

| 일시 | 2021. 10. 15(금) ~ 17(일) (3일간)

| 장소 | 두타산 삼화사(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584)

| 문의 | 보존회 사무국 033)534-7668
삼화사 중무소 033)534-7661

행사내용

- 첫째날 신중작법 / 괘불 불배이운 / 법요식 / 대령 시련 / 조전점안 / 쇄수결계 / 사자단
- 둘째날 오로단 / 상단 / 헌다례 / 중단
- 셋째날 방생 / 하단 / 설법 / 금강경독송 / 봉송회향

| 주최 · 주관 | (사)국가무형문화재삼화사수록재보존회

| 후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강원도, 동해시,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월정사, 삼화사신도회